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성찬식 및 세례식 안내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윤이삭 세례:안정구
- 전교인 수련회 안내
일시: 8월 18(토)~19(주일) 장소: 포코노 수양관 회비: \$40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등부 수련회 안내
7월 29~31일(주일~화요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방기만 집사 이경희 권사 가정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는 안정구 형제 안상미 집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7,8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7/29		안영남	방기만, 이경희	한순자
8/05	허도행	우영이	안정구, 안상미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주일설교요약

제목 : 예수님을 따를 때

본문 : 사도행전 23장 11~23절

기도제목 : 1. 예수님을 따를 때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2.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3.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고난과 환란 또한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단련이 되고 성숙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믿는 삶은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치는 삶이라는 것 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는 지금의 이와 같은 고난은 없었습니다.

유대교라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 된 후에, 사사 건건 모든 일이 부딪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앞에서 아무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매우 적었습니다.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수록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과 모욕과 매 맞음 속에 갇힘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의 삶이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장애 없이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과 소식들을 접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딪치는 일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부딪침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세상의 방식에 거슬리면서, 그로 인하여 환란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생과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환란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내면 결국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 된 후에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불해야 할 댓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환란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응원하여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최고의 법정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에게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며 있을 때,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시고 서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서서 맞이하시나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하여 핍박과 환란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어서서 보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이하실 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후서 강해) 기도: 안영남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6번(시편104편)	
찬 송 Hymn	195장	
기 도(Prayer)	김유신 집사	
세례식	유아세례, 세례	
성 경 Scripture	사도행전 23장 11~13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설 교 Message	예수님을 따를 때	
성찬식 ▲헌 금 Offering	떡과 잔을 나눕니다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 송 Hymn	446장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